

제48호·2017년 11월 15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동향

올해 12월 나호드카항 현대화 투자 프로젝트 완료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리바디아항(ООО «Порт Ливадия»)은 올해 12월 나호드카항 현대화 투자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임
 - 리바디아항은 나호드카 해양 무역 터미널 중 한 곳으로 이번 현대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억 3,700만 루블을 투자함
 - 이번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항만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매달 약 5,000톤에서 약 20만 톤까지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됨
 - 또한 약 2.5ha의 항만 부지를 철도 및 차량 등의 복합화물 운송 시스템을 위해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함
- 항만 현대화로 인해 리바디아항은 고철 및 스크랩 화물 외에도 대량화물 등이 취급 가능해지며 올해 7월 위험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대해 허가를 받음
 - 연해주 연방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나호드카항의 화물 처리량은 약 1억 2,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
자료: http://logirus.ru/news/infrastructure/posle_apgreyda_morskoy_gruzovoy_terminal_livadiya_stanet_v_4_raza_effektivnee.html?sphrase_id=111686(검색일: 2017년 10월 25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북극항로 및 극동항만 화물 처리량 증가

- 러시아 우랄관구 세관에 따르면 북극항로 화물 처리량이 약 2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 야말-네네츠 자치구(Yamalo-Nenets Autonomous District)의 사베타 공항의 올해 9개월간 화물 처리실적은 전년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록됨
- 올해 9월초 중국 화물선이 최초로 새로운 해양 터미널 '브론카'를 걸쳐 북극항로를 향해 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 도착함
 - 화물선은 8월 1일 중국 장쑤성(Jiangsu)에서 출발하여 38일 항해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함
 - Cosco사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화물선 6척을 북극항로로 운항할 것을 계획함
 - 이에 따라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
- 해양 상업항만 협회(Ассоциация морских торговых портов)에 따르면 동기간 동안 극동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2017년 9개월간 극동항만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은 약 109만 TEU로 전년대비 약 26.7% 증가함
 - 동시에 수출 화물은 약 34.3%, 수입화물은 약 44.3% 증가함
 - 컨테이너 환적 화물 처리량은 약 22.8% 증가함
 - 연안화물 운송은 약 35%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화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
자료: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led_v_otnosheniyakh_perevozchikov_k_severnomu_morskomu_puti_postepenno_taet.html?sphrase_id=111686(검색일: 2017년 10월 25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세관 설치

- 러시아 '스키프아그로(СкифАгро-ДВ)'사는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최초로 세관을 건설함
 - 본 세관은 자유경제구역에 건립되어 자유경제구역 절차에 따라 운영됨¹⁾
 - '스키프아그로'사는 4번째로 선도개발구역에 세관을 설치한 회사로 이번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처음으로 세관을 설치한 것임
 - 올해 10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'스키프아그로'사는 화물 통관을 위해 첫 번째 세관 신고서를 러시아 당국에 제출함
- 또한 '스키프아그로'사는 선도개발구역에 세관 설치 외에도 현대식 돼지사육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약 17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임
 - 본 회사는 2019년까지 약 5,300톤의 돼지고기 및 약 650톤의 육류 부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육류 생산시설은 약 134ha로 하바롭스크 지역에 위치해 있음²⁾

자료: http://logirus.ru/news/custom_and_ved/v_khabarovskom_krae_poyavilas_pervaya_zona_svobodnogo_tamozhennogo_kontrolya.html?sphrase_id=111686 검색일: 2017년 11월 2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1) TARGO Group, 'Свободные таможенные зоны в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', <http://www.targo.ru/legislation/our-comments/%D0%A1%D0%B2%D0%BE%D0%B1%D0%BE%D0%B4%D0%BD%D1%8B%D0%B5-%D1%82%D0%B0%D0%BC%D0%BE%D0%B6%D0%B5%D0%BD%D0%BD%D1%8B%D0%B5-%D0%B7%D0%BE%D0%BD%D1%8B-%D0%B2-%D0%A2%D0%B0%D0%BC%D0%BE%D0%B6%D0%B5%D0%BD%D0%BD%D0%BE%D0%BC-%D1%81%D0%BE%D1%8E%D0%B7%D0%B5>(검색일: 2017년 11월 2일)

2) Customs FORUM.RU. 'Компания «СКИФАГРО-ДВ» первой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применила режим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', <https://customsforum.ru/news/company/kompaniya-skifagro-dv-pervoy-v-khabarovskom-krae-primenila-rezhim-svobodnoy-tamozhennoy-zony-548435.html>(검색일: 2017년 11월 2일)



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

- 극동개발부 인프라 프로젝트 부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의 화물 처리량은 약 4,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 - 두 개의 국제교통회랑 중 약 3,500만 톤의 화물이 '프리모리예-2'를 통해 운송될 것으로 전망됨
 - '프리모리예-2'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은 곡물 및 콩, 컨테이너 화물이 많은 것으로 봄
-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'프리모리예-1'에 약 1억 4,500만 루블이 투자되어야 하며 '프리모리예-2'에는 약 1억 7,000만 루블이 투자 될 것으로 추정함
 - 국제교통회랑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
 - 올해 9월 연해주 지방정부와 중국 건설기업인 '구안다(Гуанда)'는 국제교통회랑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 금액은 약 1억 850만 루블임
-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국제교통회랑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지역총생산이 약 4~5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연해주 주지사는 중국의 투자로 인해 국제교통회랑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이른 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

자료: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vlozhenie_v_mtk_primorya_milliony_rublej_prinesut_milliony_tonn_gruzov.html?sphrase_id=111686(검색일: 2017년 11월 2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물류이슈

신정부 '9 브릿지' 제안 관련 극동러 투자여건과 향후 대응방향

-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한러 극동개발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'9 브릿지'(9 Bridges)를 제안함
 - 9 브릿지 제안은 신정부가 신북방 정책에 따라 한러간 9개의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한 것으로 **가스, 철도, 항만, 전력, 북극항로, 조선, 일자리, 농업, 수산** 분야를 말함
 - 9 브릿지 제안은 그 규모와 제안의 범위를 고려할 때 그간 극동 러시아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관심을 보였던 '중몽러 경제회랑'에 비견되는 종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음
- 문재인 대통령은 동 기조 연설에서 9 브릿지 제안과 함께 조선해운 협력 관련 러시아 즈베즈다조선소, 항만개발 관련 자루비노항을 직접 언급한 바 있으며, 궁극적으로 북방 협력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한-EAEU FTA 조속추진 의지를 표명함
 - 즈베즈다 조선소와 관련해 한국 조선기업의 LNG연료 대형 유조선 수주 사실,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의 참여 등을 언급함
 - 자루비노항 개발은 북극항로 개발과 연계하여 언급함

'9 브릿지' 관련 분야 러시아 정책 동향

□ 석유가스 수출물류

- 러시아는 현재의 국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 가스시장에 대한 역풍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 - 러시아 석유가스 시장으로의 **자본 유입(투자) 가능성**에 대한 2016년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%가 '현재 상태 유지', 18%가 '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
 -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지하 광물 자원 탐사, 개발, 생산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생산공유협정 (Production Sharing Agreements, PSAs)을 통해 실현됨
 - 한편 석유가스 및 천연자원에 대한 **수출관세**는 러시아 정부가 월별로 유럽시장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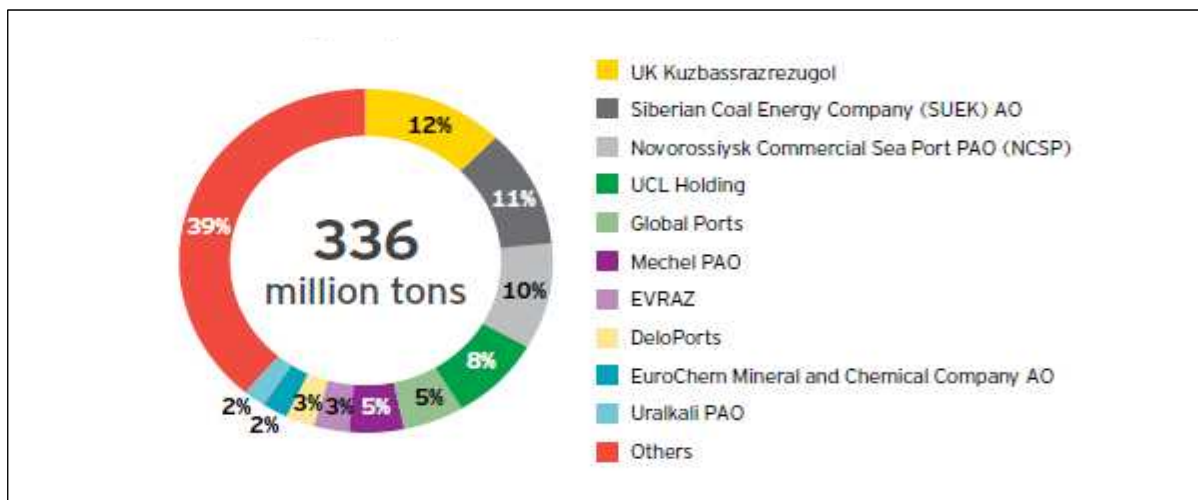


- 2016년의 경우, 최대 수출관세율을 40%로 정했으나 **2017년부터 30%로 인하해** 수출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

□ 항만 물류

- 2016년 러시아 3대 환적항은 노보로시스크, 우스트-루가, 그리고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항으로서 보스토치니의 경우 건화물 3,580만 톤, 액체화물 3,270만 톤의 환적 물동량을 기록함
- 러시아 하역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규모, 구조, 화종에 따라 다르지만 건화물의 경우 석탄·철광석 등 자원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
- 주요 기업으로는 UK쿠즈바스레주골, 시베리아석탄에너지회사(SUEK), 노보로시스크상업항PAO 등임
- 극동 러 지역에서는 보스토치니항만AO가 최대 회사이며, 이밖에 메첼 및 에브라즈도 중요한 기업임

<러시아 건화물 환적시장 관련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>



자료: EY, Overview of Stevedoring Sector in Russia in 2016

- 극동 러 지역 항만 인프라 개발 계획은 대부분 석탄 터미널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자루비노항만 유일하게 곡물터미널 건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
- 2017~2020년까지 극동 러 항만의 처리량 확충 계획은 건화물 2천만 톤(낙관적 전망 하에서는 최대 8천만 톤 추가), 액체화물 2백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음



- 상기 물동량 확충 달성 계획은 보스토치니AO의 3단계 석탄콤플렉스, 보스토치니항 석탄 터미널 건설, 바니노항(무스케만)의 사하트란스 석탄터미널 건설, 바니노항(부르니 콧)의 석탄터미널 건설, 베라항의 석탄터미널 건설, 소비츠키야가반항의 LHCG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
- 석탄터미널 이외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**자루비노항 곡물터미널** 건설이 거의 유일함
- 극동 러 지역의 항만개발 참여를 위한 최대의 유인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따른 이윤세(지방세) 등 조세 인센티브임
 -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0%까지 이윤세 감면(지방 정부에 권한 이양)
 - 기업재산세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 적용(토지세가 대표적)

□ 철도 현대화

- 극동 러 지역 철송 분야의 최대 현안은 바이칼아무르(BAM) 라인의 저개발과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의 수송능력 초과 문제임
 - 특히 보스토치니 및 나호트카의 석탄 환적이 늘어나면서 TSR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최대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의 현안은 BAM의 조속한 현대화로 지적되고 있으며, 바니노항과 소비츠키야가반항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보임

□ 조선 및 수산업 관련 물류

-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용선 건조 및 북극해 시대에 대비한 선단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
 - 러시아는 2015년 6월 과거의 조선산업 육성 프로그램(2012~2030 계획)을 업데이트 (2015~2030 해저개발을 위한 조선 및 기술발전 프로그램)함
 - 당초의 계획(2012~2030)에서는 조선과학 발전, 민수용 해양 및 하안기술 발전, 민수용 조선의 생산능력과 자재기술 기초분야 발전 등 5대 부속 프로그램을 추진함
 - 새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15년간 북극해 교통량이 2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, 내빙선박 및 쇄빙선 선단 구축을 결정
- 아울러 러시아는 조선 분야에서 어선 현대화를 결정, 수산회사의 어획쿼터 20%를 자국 내 어선건조 및 가공공장을 건설하면 추가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함
 - 대형 어선의 모항은 블라디보스토크, 무르만스크,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스키항 등임



□ 농업 현대화

- 러시아 농공업(agroindustry)은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 - 2014년~2016년 연간 농공업 생산은 18% 증가
- 러시아 농공업의 수출 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와 자금조달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
 - 러시아 농수산물 수출은 축산물 수출 3%, 수산물 수출 16%, 곡물 81%로 구성되어 있음(2015년)
 - 3대 경쟁력 요인으로는 물류, 자금조달, 정부 지원 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원가 절감, 신시장 확대, 외부 자본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평가함
- 특히 러시아 곡물 산업과 관련, 러시아 곡물 보관 능력 부족이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
 - 러시아의 올해 곡물 수확 예상량은 1억3,250만 톤 규모이나 이중 8%가 보관시설 미비로 손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³⁾
- 푸틴 대통령은 향후 농업 생산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수출국이 되겠다고 밝힘⁴⁾

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

- 극동 러에서의 조선 분야 협력은 러시아의 조선업 및 수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두 분야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
 - 조선 분야(민간용 선박 및 어선 현대화)는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산업의 극동 러 시장 개척 및 이를 통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됨
 - 어선 현대화와 수산가공 능력의 확장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,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선 건조 기술과 조선 기자재 산업의 공동 진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
 - 한편 극동 러 지역 러시아 3대 어선 모항의 하나인 파블롭스크-캄차스키항에 수산물 가공센터 협력사업을 개발해 러시아의 북극이용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
- 농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집하 및 보관 능력 향상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(보조금 및 조세 혜택 등)이 기대되므로, 우선 농산물 물류 분야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3) <http://agroinfo.com/en/news/experts-fear-loss-grain-harvest-due-improper-storage-conditions/>

4) <http://agroinfo.com/en/news/russia-will-strive-become-main-supplier-organic-products-asia-pacific-region/>



- 푸틴 대통령이 아태 시장을 겨냥한 유기농 육성방침을 천명한 만큼 우리나라 유기농 업체의 러시아 연해주 진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항만 분야의 경우 러시아의 현안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한 석탄 등 자원 수송능력의 확대이며, 이는 주로 수입과 관련 있으므로 협력사업 후순위가 될 것임
- 대안으로 자루비노항의 곡물터미널 개발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연해주 지역에 농공업 진출시 별도의 운송비 문제 해결방안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
- 기타 항만에 대한 투자시 영국 기반 국제투자 회사 Greenlease의 계열사인 Lanerook Limited가 러 에브라즈(Evraz) 소유 나훗카항 하역회사를 인수한 예를 참조하여, 러 측 화주기업의 자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
박성준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